



우리나라의 연속적 소비자물가 하락 경험과 시사점

이태열 선임연구위원

우리나라는 2019년 9월 소비자물가가 최초로 하락하였으나, 지역별로는 2015년 충북(9개월 연속), 2019년 울산(8개월 연속) 등 다수의 물가 하락 경험 있음. 충북의 경우 유가 하락이라는 공급 요인이 주도했고 2016년 들어 물가가 상승세로 반등하였음. 2019년 울산의 경우는 집세와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타 지역 대비 심각한 저물가가 나타나면서 물가 하락세가 장기화하고 있음. 전국 단위의 저물가 기조는 농산물에서의 기저효과가 해소 되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, 집세와 개인서비스 항목의 저물가 기조가 심화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

- 2019년 소비자물가는 저물가 기조를 이어오다 9월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물가 하락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(그림 1) 참조

- 2019년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에 0.8%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1.0%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가 8월에는 0.0%, 그리고 9월에는 -0.4%를 기록함
 -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하락이 2018년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가 작용한 때문이며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
- 농산물이나 석유류와 같이 공급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는 항목을 제외한 근원적 인플레이션 성격의 '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'¹⁾의 상승률은 2019년 9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0.6%를 기록함
 - 이는 2019년 9월에 나타난 소비자물가 하락이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일시적인 요인에 영향 받은 바가 크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음

-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비자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한 경험을 통해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저물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요인을 살펴보고, 최근의 소비자물가 하락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1)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소비자물가조사 460개 품목 중 가목이나 장마와 같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국제유가 변동 등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하고 물가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석유류에 해당되는 품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407개 품목들의 가격변동만을 집계하여 작성한 지수로서 근원인플레이션에 가까운 지수라고 할 수 있음

- 2019년 9월 전국 단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표 집계 이래 처음이나 지역별 소비자물가의 경우는 다수 발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
 - 충청북도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9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하락하였으며²⁾, 울산광역시³⁾의 경우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째 소비자물가가 하락하고 있음
- 2015년 충청북도와 2019년 울산광역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물가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전국 기준 소비자물가에 대해 유의점을 파악해보고자 함

〈그림 1〉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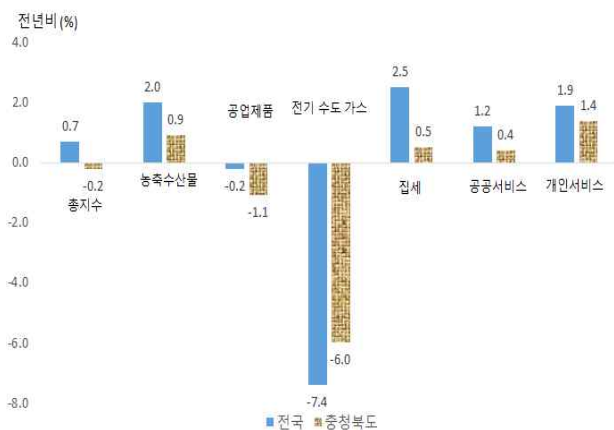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

- 2015년 충청북도의 경우 소비자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공업제품 항목의 석유류와 전기·수도·가스 항목이라고 할 수 있으나, 대부분의 물가 항목에 걸쳐 타 지역 대비 저물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음(그림 2) 참조
- 2015년 유가가 하락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소비자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, 충청북도는 9개월 (2015년 3~11월) 연속 소비자물가가 하락하여 가장 장기간 물가 하락을 경험함(표 1) 참조
 - 전라북도의 경우 6개월간 소비자물가 하락을 기록했으나, 연속적으로는 3개월간 진행되었음
- 충청북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전기·수도·가스와 같이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과 휘발유, 등유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업제품 항목에서 소비자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임
- 충청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저물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이유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소비자물가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때문이며 특히, 집세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 - 2015년 충청북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, 특히 집세 항목의 경우 -2.0%p로 전국 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냄
- 유가 하락기였던 2015년 충청북도의 소비자물가 하락은 공급 요인이 주도한 만큼 장기화되지 않았고 2016년에는 서비스 부문 물가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반등함
 - 2016년 1월 충청북도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-0.1% 하락했으나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여 12월에는 1.2%를 기록함³⁾

2) 충청북도 소비자물가는 2015년 11월까지 9개월 연속 하락한 다음 12월 전년 동월 대비 0.3% 반등하였으나 2016년 1월에 다시 -0.1%를 기록하였음

〈그림 2〉 2015년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(전국 vs. 충북)



자료: 상동

〈표 1〉 2015년 지역별 소비자물가 하락 개월 수

소비자물가 하락 월 수	지역명
9	충청북도
6	전라북도
5	강원도, 전라남도
4	경상북도
3	대전
2	광주
1	충청남도
0	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울산, 경기도, 경상남도, 제주

자료: 상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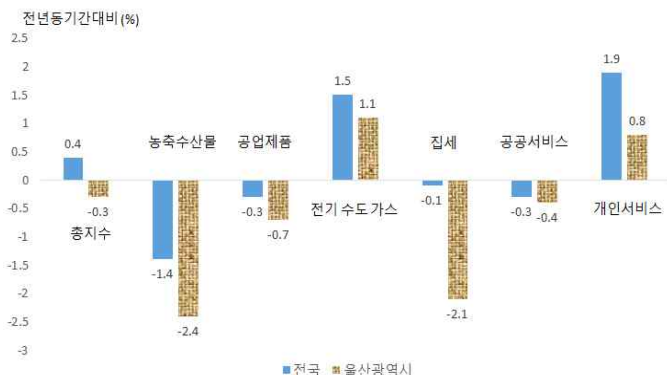
■ 2019년 울산광역시의 경우 2019년 9월까지 8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‘집세’와 ‘개인서비스’ 분야의 저물가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(그림 3) 참조

- 2019년 울산광역시의 경우 이미 2월부터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타 지역 대비 심각한 저물가 상황을 보이고 있음(표 2) 참조
- 2019년 울산광역시 소비자물가의 경우 공업제품, 집세, 공공서비스 등 다수 항목에서 마이너스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항목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
 - 2019년 9월 울산광역시의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여도 -0.3% 수준⁴⁾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농축수산물이 가장 주요한 물가 하락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움
- 울산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집세와 개인서비스 항목에서 저물가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있음
 - 2019년 1~9월 울산광역시의 전년 동기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국 평균과 비교할 경우 집세(-2.0%p)와 개인서비스(-1.1%p)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
 - 집세와 개인서비스는 다른 항목과 달리 공급요인 등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자산가격 조정이나 민간시장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물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

3) 2015년 충청북도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12월 0.3%로 반등했으나 1월에 다시 -0.1%를 기록함

4) 2019년 9월 울산광역시 농축수산물 제외 물가 상승률은 울산광역시에 대해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나 편의상 전국 단위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〈그림 3〉 2019년 1~9월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(전국 vs. 울산)



자료: 상동

〈표 2〉 2019년 1~9월 소비자물가 하락 개월 수

소비자물가 하락 월 수	지역명
8	울산
2	광주, 대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
1	서울, 부산, 인천, 경기도, 제주
0	대구, 강원도

자료: 상동

■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, 향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추이와 관련하여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집세와 개인서비스 부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(그림 4) 참조

-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물가의 하락세는 농산물 물가에서의 기저효과가 해소되면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
-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경우처럼 개인서비스와 집세 항목의 저물가가 심화될 경우 전국 단위의 소비자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음
 - 집세와 개인서비스는 농축수산물, 공공서비스, 전기·가스·수도와 같이 일시적 공급 요인에 의해 변화하거나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다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
- 2019년 전국 단위 소비자물가도 울산광역시와 유사하게 집세와 개인서비스 부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과 자영업 업황 등 관련 시장의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
- 보험산업은 최근의 저물가 국면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‘수요위축’과 ‘저금리’라는 경영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향후 물가 관련 동향과 관련 경제 심리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[kiri](#)

〈그림 4〉 우리나라 집세와 개인서비스 부문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



자료: 상동